

양식어가 고수온 피해 ‘눈덩이’… 재해보험 무용지물

전남, 작년 990곳서 574억 피해
올해 16일 빠른 고수온 예비특보
어민 재해보험 가입률 40% 그쳐
1년 소멸·특약가입·할증부과 원인
자기부담금 완화·품종 추가 시급

기후변화로 매년 고수온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양식어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정작 어민들의 자연재해 손해 보상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해보험이 1년짜리 소멸성인데다 특약 가입비와 보험료 할증 등 추가 비용 발생으로 어업인들의 부담이 큰 탓에 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5일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기준 함평만·도암만·덕량만·여자만·가막만 등 전남 연안 5개 해역에 올해 첫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령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16일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같은날 기준 남해안의 수온은 20.5도에서 최대 24.9도, 서해안은 21.1도에서 최대 30.7도까지 상승하는 등 평년 대비 1도 내외의 높은 수온을 기록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짧은 장마와 강한 폭염,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마난류의 유입 증가로 연안 수온이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7~8월에는 평년 수준, 또는 약한 규모의 진도냉수대 영향으로 고수온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남지역 고수온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다. 전남해역은 지난해 역대급 고수온 피해를 봤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장기간 이어진 고수온의 영향으로 여수·고흥 등 10개 시·군 990개 양식 어가에서 조피볼락, 광어, 우럭, 전복 등 어패류 21종 총 2582만4000마리가 폐사했다. 피해액은 57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에도 57일간의 고수온으로 여수·고흥·장흥·완도·신안 등 5개 시·군 376어가에서 21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고수온 기간이 늘어나면서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양식 어가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적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지역 재해보험 가입률은 올해 기준 40.3%에 그치고 있다. 어종별로는 전복(75%), 넙치(78%)가 비교적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나, 조피볼락 등 고수온에 취약한 주요 양식 어종의 가입률은 22%에 머물고 있다.

어업인들은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 구조적인 제약을 꼽고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1년짜리 소멸성 보험으로, 고수온 피해 보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2배 이상으로 상승하고, 일정 기준 이상 보험금을 청구한 뒤 다음 해에 다시 피해가 발생하면 할증이 부과된다.

보험 가입비 또한 정부가 50%, 전남도가 40%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비 한도가 1000만원에 불과해 대형 어가의 경우 수천만원의 보험료를 자부담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해보험에 대한 지방비 지원 비율이 2021년 30%에서 2022년 40%로 확대되고, 지원 한도 역시 어가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그해 보험 가입률이 상승했다”며 “도 차원에서도 자기부담금 완화 및 고수온·재해 취약 품종 추가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면에 계속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한여름 크리스마스 출범식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원과 유치원생 등이 15일 광주 남구청에서 희망을 선물하는 특별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출범식’을 갖고 후원자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김양배 기자

ACC, 수장고 최초 공개… “亞 생활문화 한가득”

아시아권 문화예술품 1만9천여점
중앙아시아실 개관 맞춰 자료수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아시아문화박물관 수장고를 15일 최초로 공개했다. 이날 ACC에서는 10년간 국내·외 교류를 통해 기부받거나 수집한 동남·중앙·서·남아시아 문화예술품 1만9017점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아문화박물관 수장고는 △수장고1(아카이브·기증·구입) △수장고2(주제별 아카이브) △수장고3(누산타라 유기질) △수장고4(누산타라 무기질) 등 총 4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아시아문화박물관에는 동남아시아 소장품 1만8625점, 중앙아시아 소장품 377점, 서아시아 소장품 12점, 남아시아 소장품 3점이 전시 중이거나 소장돼 있다.

각 수장고에는 누산타라박물관에서 소장하던 인도네시아 유물 등 아시아 조형물, 목재·직물 등 유기질 소장품, 금속·석재·토기 등 무기질 소장품 등이 자리한다. 누산타라박물관은 과거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식민지배 시절 수집한 자료로 인도네시아 식민지배 종료 이후 모든 수집품을 본국인 델프트문화재단 산하 누산타라박물관에 전시, 보관해 왔다. 하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박물관 폐관 이후 지난 2018년 수증 절차를 거쳐 ACC로 반입됐다.

특히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인도네시아 생활상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소장품들로 가득해 향후 ACC 전시를 책임질 풍부한 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수장고 내부는 작품의 산화와 변질을 막기 위한 설비도 철저히 갖췄다. 금속류는 밀폐 포장돼 있으며, 온도는 20도 안팎, 습도는 40~50%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ACC는 오는 10월 아시아문화박물관 로비 공간에 중앙아시아 전시장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ACC는 이를 위해 이미 많은 소장품을 보유한 동아시아 자료보다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자료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 관련기사 14면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유) 탐 환경건설



(주) 탐앤제이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번길 20
Tel 062)376-5599 Fax 062)376-0094